



우리 사회는 소리 없는 혁명을 겪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혁명은 지진이 자신이 파괴할 건물에 신경 쓰지 않듯 자신이 파괴할 인간의 존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새로운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너무 약한 계급과 인종은 이제 물러나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통탄할 변화가 자본가들, 즉 지주와 대부업자의 소유욕에 우리 사회가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믿기도 한다. 이렇게 덜 떨어지고 근시안적인 시각이 또 어디 있을까?
('이주 혹은 강제추방' 중에서)

성실하고 계획적인 소작농은 바로 그 근면함과 계획성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반대로 무기력하고 어리숙하면 “켈트족의 태생적 열등함”이라는 멸시를 받았다. 소작농은 선택권 없이 가난뱅이가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근면해서 가난뱅이가 되거나 어리숙해서 가난뱅이가 됐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아일랜드에서는 ‘소작농의 권리’가 주장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소작농의 권리에 대하여' 중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저항 행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연대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노동자들은 이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 지역의 노동자들이 애쓰는 동안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하향된 노동 조건을 받아들여 그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자는 게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신념이자 관심사가 된 셈이다. 이렇게 한 지역의 파업이 저 멀리 다른 지역의 파업 동참이라는 메아리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차티스트 운동' 중에서)

사실 나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다. 임금의 상승과 하락, 그에 따른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현재 산업 구조에서 노동 계층의 정신을 떠받치고, 지배 계급의 공격에 맞서는 대대적 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배만 부른 노동 계층이 무식한 생산 도구로 전락하거나 이런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 어떤 사회가 계층 간 반목의 토대 위에서 있는데, 그 사회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착취 구조를 몰아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
('차티스트 운동' 중에서)

영국 부르주아 계급이 인도에서 행하게 될 모든 조치는 결과적으로 인도인 대다수가 처한 사회적 환경을 철폐하거나 유의미하게 개선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건 생산 능력의 향상과 얽힌 문제이고, 인도인이 그 능력을 얼마나 갓출 수 있을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부르주아 계급은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주춧돌을 놓는 역할은 확실히 하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이 이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적이 있기는 할까? 언제나 개인과 국가를 핏물과 먼지 속에 굴리고, 고통과 굴욕을 주면서 발전만 이루지 않았던가.
('영국 지배하에 있는 인도의 미래' 중에서)

부르주아의 시대는 새로 도래한 세계의 물질적 기초를 닦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상호 의존을 토대로 한 범세계적 교류를 이끌어내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존의 생산방식을 자연의 힘에 대한 과학적 지배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부르주아 경제는 마치 지질학적 격변이 지구 표면을 만들어낸 것처럼 새로운 세계의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낼 것이다. 거대한 사회 혁명이 부르주아 시대의 산물인 세계 시장과 현대적 생산수단을 정복하고, 그것들이 진일보한 대중들의 공동 지배 아래 놓인 후에야 인류 발전의 모습이 희생양의 두개골에 넥타(nectar)를 따라 마시는 이도교적 우상의 모습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지배하에 있는 인도의 미래' 중에서)

공장주들은 “임금은 식료품 가격과 연동되는 게 아니다. 불변의 수요공급법칙을 따른다”고 말한다. "선데이타임스"는 “노동자들

이 공손한 태도로 요청해야 그 요구가 수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손한 태도가 대체 ‘불변의 수요공급법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무역 도매상들이 커피값을 올리겠다고 “공손한 태도로 요청”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여느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될 거라면 최소한 다른 상품과 동일한 기회라도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파업' 중에서)

자, 파업을 통해 증명된 것은 무엇인가? 노동자들 또한 이해관계가 걸린 고용주의 장담을 믿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찾대로 평가받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실제 시장 가치가 반영된 임금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파업 또는 파업을 하겠다는 위협뿐이다.
('파업' 중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설탕 증가분 16,500톤 중 상류층의 식료품이나 디저트를 만드는 데 쓰인 분량은 전혀 없다고 전지전능하게 단정한다. 참 대단한 능력이다. 증가분이 오롯이 작업자 계층의 찻잔에 들어간 것처럼 말한다. 나는 이런 전지전능함을 흉내도 못 내겠다. 이제 빵을 구하기 힘드니 자식들에게 설탕을 먹여야 할 판이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1788년 기근 중에 프랑스 국민들에게 마카롱을 먹고 버티면 되지 않냐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경제 번영의 진실' 중에서)

노동자 회의가 자신을 선출한 이념을 충실히 따른다면, 미래 역사가들은 1854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1854년 영국에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의회가 존재했는데, 그건 런던 의회와 맨체스터의 노동자 회의 –그러니까 부자들의 의회와 가난한 이들의 의회 –였다. 그중에서 대중을 대변한 의회는 공장주들의 의회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의회였다’고 말입니다.
('노동자 회의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성품이 온화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나 무역으로 개방된 항구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관한 보도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 모든 상황은 물론 더한 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아무 소식도 접해본 일이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에 살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회·도덕적 현실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금전적으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이상 괜히 나서서 언급하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자기 마실 차를 사 오는 식료품점 반경 너머로는 한 치도 내다보지 않는 영국 본토의 국민들은, 이처럼 정부 부처와 언론이 대중의 입에 욕여넣는 거짓 사실을 날름 삼킬 뿐이다.
('중국에서 벌어진 영국의 잔학 행위' 중에서)